

전곡高 기숙사 예지관 개관

쾌적한 전원배경 뛰어난 학습환경 자랑



연천군은 지난 24일 순학규 경기도지사과 김규배 연천군수 및 학부모 학생 등 1천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기숙사 개관식을 가졌다.

연천군은 지난 24일 순학규 경기도지사과 김규배 연천군수 및 학부모 학생 등 1천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기숙사 개관식을 가졌다. 연천군은 지난 24일 순학규 경기도지사과 김규배 연천군수 및 학부모 학생 등 1천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기숙사 개관식을 가졌다.

정되어 22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5월24일 기공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 700여평)의 규모로 건립됐다.

예지관은 124명의 재학생이 4인1실에서 생활하며, 원격사이버 어학실 및 대학 강의실 형태의 강의실 등 현대식 시설과 쾌적한 전원을 배경으로 뛰어난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 건립으로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추게 된 전곡고등학교는 우수교사 영입이 병행추진되면서, 수년 내에 다수의 명문대 입학 등으로 명문고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에 의하면 "전곡고등학교 기숙사 개관 등 교육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교육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시대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94. 할 일이 많은 것 같군요.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I see.
유해버라뽀뽀투두,아이씨-

* 10시까지 끝내려면 서둘러야겠어요
I've got to hurry up to finish by 10.
아이브갓투러리압투후니쉬바이텐

95. 여긴 항상 차가 밀려요.
Traffic jam here always.
트래픽재밍여얼웨이즈

* 쓸데없는 시간만 죽인다니
Just killing time for nothing.
저스킬링타임워나싱



문의: 윤중성 (017-723-4977) joolyoon@nate.com

교사 탐구

12

관인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소영

열린 수업으로

학생들의 이해도 높여

행정교사와 수업교사 이원제 절실



지난해 3학년 임시반 담임으로서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데 견인차 역할에 나선 관인고등학교 박소영 교사(사진.27)는 제주도 출신으로 관인고등학교가 첫 부임지다. 지난 2002년 부임해 올해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 교사는 지난해 고3 담임을 맡아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등 명문대에 학생들이 진학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활했다.

박 교사의 첫인상은 '뚝뚝함'과 '당당함'으로 여기 관인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도 다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제주도에서는 인공고시 계획이 없어 경기도 인공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박 교사가 관인고등학교에 부임한 것은 2002년3월2일이다.

조선시대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충신들만 골라 귀양을 보냈던 제주도와 어진 관리들이 주로 기거했던 관인면은 정신적으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박 교사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관인고등학교 한 학급 학생들은 7~8명은 질병으로 조퇴하고 1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등 좋은 인상은 아니었으며 학부모 또한 교사의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말 대하듯 하는 모습도 달갑지는 않았다.

수업방식에 있어서 박 교사는 열린 수업을 선호한다. 수행평가에 있어 시를 소설로, 소설을 시로 바꿔 쓰는 응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제고를 물론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시나 소설을 연극이나 노래로 만들어 다시 배우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을 공연예술로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한다.

어렸을때의 이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입체적 사고는 물론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박 교사는 수업시작하기 5분전에 '5분 글쓰기'를 실시한다. 5분 글쓰기의 주제는 날마다 다르다. 박 교사는 자기장점 10가지, 내가 좋은 점, 위로의 편지 등 상황에 맞게 주제를 정해준다.

글쓰기 형식은 산문으로 10~15줄 정도의 분량이다. 5분 글쓰기의 내용은 기말에 발표하고 작품전시회 하기도 한다.

5분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를 익힌 학생들은 교내 백일장 대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 자기내면의 세계도 정리할 수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 또한 돋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도 요구한다. 국어생활이라는

과목에 매체환경과 국어환경이라는 주제로 매체언어를 통해 실제로 30분용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물론 노래도 3~4곡 정도 포함하여 멘트를 삽입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여 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흔히 즐겨듣는 라디오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박 교사는 "교사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서수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책을 사서 읽지 않은 학생들에게 최소한 1년에 4권은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1분기에는 소설, 2분기에는 수필, 3분기에는 시, 4분기에는 인문사회서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있다.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박 교사가 맡은 고3학생 중 이충민 학생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했다.

평소 공부에만 주력하는 학생이 아니라 활달하고 개성이 강하며 수업시간에도 매우 열심이었다.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박 교사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 교사에게는 고민이 있다. 처리해야 할 사무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심의 학교는 교사들이 많다. 따라서 업무도 분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골학교는 교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량은 똑같다. 당연히 한 교사가 여러 영역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업준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박 교사는 행정교사와 수업교사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업무에서 자유로울 때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은 지나야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박 교사는 다음 수업을 위해 급히 교실로 향했다. 박 교사의 분명하고 바른 교육관을 통해 밝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입학철 안전한 통학 버스 이용

"통학버스 주위에는 운전자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음을 알고 주의해서 행동한다. 통학버스에서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안전한 승·하차 방법을 익히고, 승차 중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



김순희 포천신문 주무명기자

가정과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교육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주의 할 점과 안전 수칙을 학습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안전한 보도에서 기다립니다.

둘째,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버스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차례차례 타고 내립니다. 내릴 때에는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뛰어서 타거나 내리지 않으며 내리자마자 통학버스 앞이나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스가 지나간 다음 길을 건너는 습관을 가집니다.

넷째, 통학버스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승강구에 내려서지 않습니다.

다섯째, 차내에서는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으며 고개나 손을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앞뒤나 옆을 내려다 볼 때 자동차의 바로 앞부분이나 옆 창우리 가까운 부분은 가려져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사각지대는 차가 클수록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어린이는 몸이 작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실제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실제 학원차량이나 유치원 통학용으로 많이 쓰이는 25인승 차량에서 6살 어린이가 내리는 경우를 설정한 후 전자 직접 사각지대를 확인한 결과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우측 전방 60센티 우측모서리에서 출입문을 잇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우회전할 시에는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자동차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직접 어린이들을 인계하도록 합니다.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지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지체시간 등으로 인해 통학버스의 무리한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차도에서 기다리지 말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도로

내려가도록 하며, 어린이를 인계할 때는 질서를 지켜 모범을 보여주셔야 바랍니니다. ▶어린이의 가방 끈이나 옷이 출입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통학버스에 반드시 탑승하여 차내 지도와 더불어 승·하차 시에는 안전한 장소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특히 길을 건널 경우에는 반드시 길 건너편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유아인 경우에는 승·하차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인계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의 스케줄을 확인하여 앞지르기, 과속운전과 같은 무리한 운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학버스의 안전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통학노선을 설정할 때는 가급적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는 방향으로 통학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공단에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교통 교육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하여 공문화 되었고 교육을 원하시면 공단이나 명예교사 김순희(018-222-1790) 모정애(017-323-6504) 접수 바랍니다.

gk2151@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고속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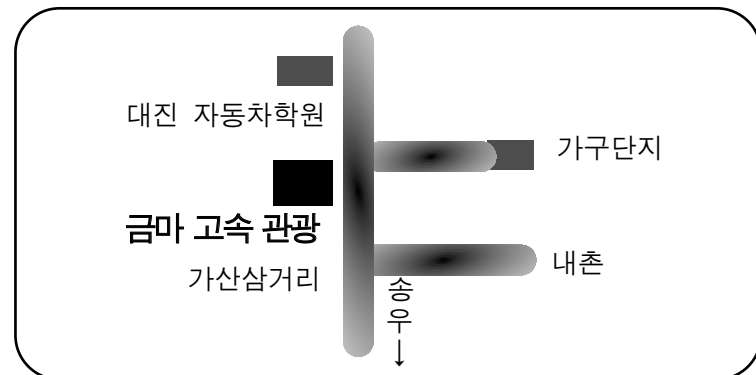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